

국민의당 非安－親安 갈등 ‘점입가경’

“安, 이미 종친사람...바른정당과 통합하려다 바보 돼”
“당 대표에 비수...귀를 의심” 정례오찬 소득 없이 끝나

바른정당 분당 사태 여파로 불붙은 국민의당 내용이 격화되며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非)안철수계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8일도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주도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당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형국이다. 안 대표가 이날 당 의원들의 정례오찬에 참석해 갈등 수습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설명이나 양해없이 “일일이 찾아뵙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짤막한 답변으로 그치면서 되레 갈등을 키우고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상돈 의원은 8일 안 대표를 겨냥해 “아마추어다. 정치적 자산도 고갈됐으며 정치적으로 (이미) 종을 친 사람”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내에서 안 대표 저격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대표의 현실 인식, 정세 판단, 공감능력 등

정치적 역량 전체가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공개석상에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에 출연, “애초 되지도 않는 바른정당하고 통합한다고 한 것도 우습게 됐다”면서 “(안 대표) 본인이나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다들 아마추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박지원 의원 말씀대로 닭 쫓던 개가 됐다. 바보 된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안 대표가 바른정당 잔류파와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은 물론 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이끌 가능성 또한 극히 희박하다는 평가도 내놔다.

박지원 전 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바른정당이 저렇게 소멸하면, 실체가 없는 것과 무슨 통합이나 연합, 연대가 있겠냐”라며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연대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안 대표를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가 되는 것인데, 아직도 연대한다고 하면 (바른정당에 잔류할) 5~6명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른정당이 없다면 다시 '3당제'라는 20대 총선의 민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다당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서 “거기(통합·연대)에 얽매이는 데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들은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며 “닭 쫓던 개, 종했다, 선을 넘었다, 아마추어다 등등 당 대표를 향해 비수를 쏜은 미스터리한 말에 기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자원봉사를 떠돌고, 어떤 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사기를 떨어뜨리

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날 안 대표는 당 의원들 간의 수요오찬 모임에 나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나 이렇다할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원래 의원들 간의 정례 오찬 자리인데,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안 대표가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내 갈등이 이번에는 수습되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 대표가 의원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갔으니 앞으로의 행보를 좀더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안 대표가 오셨길래 한 중진 의원이 나서 '당내 상황에 대해 한 말씀 주시라'고 했더니, '앞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더라”면서 “이렇거면 뭐하러 참석 대상도 아닌데 찾아왔나 모르겠다. 더이상 (안 대표에 대해) 말하기도 싫다”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른정당 추가 탈당 이어지나 잔류파 전대 연기·통합전대 요청 강경파 거부...갈등 증폭

분당 상황에 이른 바른정당에 후속 탈당 의원이 있을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에 잔류한 자강파의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내부 동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잔류파 내부에서도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당파'라 불리는 일부 자강파 의원들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통합파와 함께 '11·13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지만 유 의원을 비롯한 강경 자강파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일단 당에 남은 11명 의원은 매일 만나 서로 생각의 차를 좁힌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2차 탈당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추가 탈당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병국·김세연·박인숙·이학재·오신환·정운천 등 현역 의원 6명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다. 이 중 정운천·박인숙 의원은 전대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가 8일 다시 복귀해 탈당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은 새 지도부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유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가 탈당을 결심한다면 그 시점은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친박 징계’ 장기전

홍준표, 서·최 연일 비난

여론전 통해 명분쌓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으로 바른정당 일부와 통합을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주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 진영에 대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친박(잔류 친박)들의 정치생명만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6일에는 핵심 친박에 대해 양박(양자 친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

서 인적청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확인,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홍 대표는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들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16%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충분한 ‘여론전’을 통해 명분을 쌓고 확실한 우세를 점했을 때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무성 의원을 겨냥, “총선 참패, 대통령 탄핵 주도, 탈당으로 인해 대선까지 치렀다”며 “서·최 의원과 김 의원이 다른 것은 홍 대표에게 줄을 서나, 안서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국민의당, 이간질 중단해야”

‘SOC예산 호남 홀대론’ 성토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당의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주장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요즘 느닷없는 ‘호남 홀대론’에 이어서 ‘경상도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30% 줄며 전

국 모든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비가 가파르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호남 SOC 예산도 전국 전체 삭감 평균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16% 정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호남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줄어들었다”며 “우대받지 못하면 차별인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에 대해 “궤변으로 문재인 정부와 광주, 전남 지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오늘 4차산업특위 신설 처리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등 일부 특위 신설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강준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앞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4차산업혁명특위, 미세먼지대책특위 등 특위 신설에 합의했지만, 위원장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각 당 간사로 구성된 별도 모임을 만드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개헌에 대한 동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날 중 개헌특위 내에 기초 소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에는 자문위원회가 개헌안을 만들 듯하다”며 대강의 개헌 일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 의장 주선으로 국회 내에 여야 예산 관련 전문가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여야는 이밖에 애초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24일로 변경, 한국을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정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우리법研 정치 편향 없어...사형제 폐지 찬성”

헌법재판관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신상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쟁점이 없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범공론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형제 폐지, 헌법재판관 다양성, 국가

보안법 폐지 등 정책적 신념에 대한 질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현재까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 2억1000만원”이라며 “특히 유 후보자가 1993년 현재에서 근무할 때 현재는 4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 “지금로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로,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4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면목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